

# 제주 사회 통합과 제주어\*

강 영 봉\*\*

- I. 사회 통합과 언어
- II. 사회 통합과 관련한 언어적 변인
- III. 제주어를 통한 제주 사회 통합
- IV. 결론

##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주 사회 통합을 위하여 제주어의 기능과 역할을 실증적으로 살피고 있다. 논의의 출발은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 ‘언어는 에네르게이아(energeia)적 요소’라는 점,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생각이나 행동도 다르다’는 언어상대성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 통합과 관련한 언어적 변인으로 방언에 대한 태도, 세대 차이, 지역적 차이를 들고, 그 변인에 따른 현상을 살폈다. 방언에 대한 태도는 예전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 방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하면 세대 간 차이는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문화와 관련하여 22개의 어휘를 살핀 결과, 전체적으로 22개 모든 어휘의 생태 지수는 50% 미만이었다. 세대에 따라 어휘 사용 빈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적 차이도 발견되지만 이는 세대 간 차이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 논문은 2013년 4월 25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제주문화와 120만 제주인의 사회통합 대토론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재작성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방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제주어 교육 강화, 제주어와 표준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이중언어 생활을 할 때 제주어가 살아 있는 언어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 사회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사회 통합, 제주어, 제주문화, 언어 태도, 생태 지수, 이중언어 생활, 제주인

## I. 사회 통합과 언어

‘사회 통합과 언어’라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 글은 다음 몇 가지를 전제로 한다. 그 첫째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전제, 둘째는 “언어는 에르곤(ergon)적 요소가 아니라 에네르게이아(energeia)적 요소”라는 전제, 셋째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전제 등이다.

첫째,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전제다. 이는 사회언어학자 또는 언어사회학자들이 내세우는 언어의 정의로, 언어는 사회 구성원 공동의 약속이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의해서 약속이 성사되거나 파기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하고, 말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과 똑 같거나 비슷하게 알고 있어야만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실’(감자)이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도 ‘가짓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흰색 또는 자주색 통꽃, 땅속 덩이줄기, 녹말, 영화 제묵’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가짓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 흰색 또는 자주색 통꽃, 땅속 덩이줄기, 녹말, 영화 제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둘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가짓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을 ‘매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알고 있다면 한 사람은 ‘지실’을 말하는 것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저’(고구마)로 이해하고 있으니 서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둘째 전제는 “언어는 에르곤(ergon)적 요소가 아니라 에네르게이아(energeia)적 요소”라는 훔볼트(W. v. Humboldt)의 언어 정의다. 그에 따

르면 “언어를 그 현실적 본질에 있어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순간마다 지나가는 것이다. 문서에 의한 언어의 보존도 미라와 같은 항상 불완전한 보존에 지나지 않는다. 그 보존은 살아 있는 구체화를 필요로 한다. 언어는 결코 에르곤(ergon)이 아니고 에네르게이아(energeia)이다. 따라서 언어의 진정한 정의는 발생적 정의일 수밖에 없다.”(Humboldt/신익성, 1985, 72쪽)는 것이다. 여기서 ‘에르곤’은 ‘완성된 것, 정적인 것, 작품, 죽은 산물’ 등을 의미한다면, ‘에네르게이아’는 ‘움직이는 것, 살아 있는 것, 힘이 있는 것, 창조적인 것’ 등을 뜻한다. 그러니 언어는 ‘정적인 것, 완성된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살아 있는 것, 힘이 있는 것, 창조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훔볼트 자신도 “언어는 죽은 산물이 아니고 차라리 생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언어가 대상의 표시, 이해의 매개로서 작용하는 것을 추상시키고 차라리 주의 깊게 내적 정신 활동과 긴밀하게 섞여 짜여진 언어의 기원과 그들의 상호 간의 영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찰해야 한다.”(Humboldt/신익성, 1985, 71쪽)고 주장하고 있다. ‘에네르게이아’는 ‘끊임없이 생동하는 생산 행위로서의 언어’ 또는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정신적 과정’을 의미하지만 이를 확대하여 언어는 ‘힘이 있는 것’, ‘창조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나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 등은 그 준거로 제시할 수 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하니 그들은 탑 쌓기를 그쳤더라.”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다. ‘언어가 하나’였으니 큰 힘을 발휘하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더니’ 응집력이 약화되어 탑 쌓기를 그만 두었다는 것이니, 언어에는 ‘에네르게이아’ 곧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도 마찬가지다. 연설도 말이라는 언어의 한 단면으로, 이 연설로 말미암아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부흥의 길로 인도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물론 연설 곳곳에 ‘살아 있는 언어’, ‘죽은 언어’를 언급하며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살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경우, 정신적 발달이 생명 속에 스며들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의 경우에는 정신적 발달과 생명은 제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된다.”<sup>1)</sup>(피히테/황문수, 1989, 78쪽)며 ‘살아 있는 언어’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전제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여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는 이른바 ‘언어상대성가설’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훔볼트, 사피어(E. Sapir), 워프(B. L. Whorf)<sup>2)</sup> 등에서 비롯된다.

“한 민족의 정신적 특성과 언어 형성은 서로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주어진다면 다른 것은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그 까닭은 지성과 언어는 서로 상응하는 형식만을 허용하고 서로 복돋우어 주기 때문이다. 언어는 말하자면 민족 정신의 외적 표출이다. 민족의 언어는 민족의 정신이며 민족의 정신은 민족의 언어이다.”(Humboldt/신익성, 1985, 69쪽)

“언어에는 배경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인종(또는 몇 개의

- 1) 여기서 ‘민족’ 대신에 ‘사람’으로 바꾸어 읽으면 우리들의 논의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독일 국민에게 고함』에는 ‘언어’에 대한 문제를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몇 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언어의 성질이 그 민족의 전체적인 인간적 발전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언어는 사고하고 의욕할 때에 그 민족 개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제한을 하거나 또는 비약을 하게 하며, 또한 언어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통용 범위 내에서 유일하고 공통된 오성에 결합한다. 따라서 언어는 감각 세계와 정신 세계의 참된 교류점이며 이 두 세계의 끝에서는 언어 자체가 두 세계의 어디에 속하는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서로 융합되어 있다.”(피히테/황문수, 1989, 74쪽)

“죽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연구는 오직 낮은 개념을 포착하여 이를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적이고 주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연구는 참으로 철학적이다. 그러므로 죽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연구가 살아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연구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막혀 버린다는 것은 분명하다.”(피히테/황문수, 1989, 89쪽)

- 2) “한 개인의 사고 형태는 본인 자신은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어느 확고한 유형적 범칙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다. 이들 유형이란 곧 그 사람 자신의 복잡한 언어 체계들인데, 이것 역시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언어 체계의 특징은 다른 언어, 특히 상이한 어족의 언어와의 명쾌한 비교와 대조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의 사고 자체는 한 언어 속에 있는 것이다.”(김진우, 1996, 185쪽 재인용)

인종) 즉 생리상의 특징에 의해서 다른 군과 차별되는 것과 같은 일군에 속하고 있다. 또한 언어는 문화 즉 사회적으로 상속되어 우리의 생활의 조직을 결정하는 풍속, 신앙 등의 집합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Sapir/김중훈, 1963, 245쪽).

이 인용에서 훔볼트의 “언어는 말하자면 민족 정신의 외적 표출이다. 민족의 언어는 민족의 정신이며 민족의 정신은 민족의 언어이다.”는 견해, 사피어의 “언어에는 배경이 있다.”와 “언어는 문화 즉 사회적으로 상속되어 우리의 생활의 조직을 결정하는 풍속, 신앙 등의 집합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위프의 “그 사람의 사고 자체는 한 언어 속에 있는 것이다.”는 의견이 ‘언어상대성가설’<sup>3)</sup>을 낳았다.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주둥이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무엇이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두고 서양에서는 “새가 노래한다.”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운다.”라 표현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무 증거도 안 되어 쓸모없게 된 문서’의 뜻을 지닌 ‘허멍이문세’도 허멍(許溟)<sup>4)</sup>이라는 목사의 선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전제를 염두에 두고, ‘사회 통합과 언어’의 문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이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된다. 이정민(1981)과 강영봉 등(2008)은 세대 간 차이 문제, 김순자(2010)는 공간적 차이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다.

①이정민: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②강영봉 등: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

- 3) 이는 문화우위론 곧 ‘사회의 문화가 그 사회의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에 대한 역발상으로서의 언어우위론을 뜻한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언어가 그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문화우위론이나 언어우위론이나에 따라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현대언어학의 발전과 더불어 언어우위론을 지지하는 편에 서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김진우(1996), 181-290쪽 참조.
- 4) 金錫翼(1918)의 『耽羅紀年』 권4(甲戌 14년), 99쪽에 따르면, “이 해(1814년) 목사 허멍은 잡녀가 미역을 채취하고 내는 수세(水稅)를 폐지하고 자비전(自備錢) 900량을 공용으로 보충하니 허멍(許溟)의 치정(治政)을 백성들은 청백(淸白)의 덕이라 칭송하여 비를 세웠다.”(是歲牧使許溟罷潛女採藪水稅自備錢九百餘兩以補公用許溟治政淸白民稱德立碑)라 기록되어 있다.

## ③김순자: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자료 ①은 전국의 학생 784명을 대상으로 방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것이며, ②는 생태 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사 관련 어휘 186개(‘가’형)와 제주 문화 관련 어휘 90개(‘나’형)를 다섯 개의 인지 항목에 따라 ‘가’형 71명, ‘나’형 240명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자료 ③은 제주어<sup>5)</sup>에 대한 언어지리학적 연구 결과로 150여 어휘에 대한 분포 지도를 작성하고, 제주도를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눈 논문이다.

자료 ①과 관련해서는 방언 사용과 그 태도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필자가 2013년 제주 지역 대학생 42명(남학생 22, 여학생 20)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도 제시될 것이다.

## II. 사회 통합과 관련한 언어적 변인

지역 사회 통합과 관련한 언어적 변인은 대표적으로 성, 세대, 지역 등 셋을 들 수 있다. 지역이 다름으로써 언어가 다르며, 자기 언어에 대한 태도가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어 지향적이라는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세대 간에도 차이가 드러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고어형을 많이 보전하고 있으며, 노년층은 대체로 젊은 시절에 익힌 언어 습관을 늙어서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 1. 방언에 대한 태도

이정민(1981)은 방언에 대한 태도 등의 목적으로 전국의 학생 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sup>6)</sup>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이정민, 1981, 557쪽).

5) 여기서 ‘제주어’는 ‘제주도방언’ 또는 ‘제주방언’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쓰며, 직접 인용인 경우는 원문에 따라 ‘제주도방언’, ‘제주방언’을 쓰기도 하였다.

6) 지역별로 서울(남 66, 여 60), 경기도(남 21, 여 43), 충청도(남녀 각 20), 강원도(남 19, 여 20), 경상도(남 20, 여 21), 전라도(남녀 각각 17)의 고교생 344명,

<표 1> 방언에 대한 태도(1981)(단위: %)

구 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서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믿음직스럽다	70	52	65	41	25	20	20	50	24	23
듣기 좋다	60	19	47	29	55	20	25	15	92	92
씩씩하다	75	29	41	23	20	10	15	10		
점잖다	20	19	11			10	50	65	46	27
상냥하다				29					10	52
배움직하다	20		24		10			20	61	57
부럽다	20		24						32	23
촌스럽다		14	24	53	15		30	70		
무뚝뚝하다	70	81	29		55	65		50		
간사하다										
듣기 싫다		19				15				

<표 1>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은 자기 방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반대로 여학생들은 자기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편이다.

제주도 남자 대학생들은 ‘듣기 좋다’와 ‘무뚝뚝하다’가 각각 55%로 나타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믿음직스럽다’(25%), ‘씩씩하다’(20%), ‘배움직하다’(10%)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촌스럽다’(15%)는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반면 여자 대학생들은 ‘무뚝뚝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가장 높으며(65%), ‘믿음직스럽다’(20%), ‘듣기 좋다’(20%), ‘씩씩하다’(10%), ‘점잖다’(10%)는 긍정적인 반응은 약하게 나타난다. 경상도 여학생과 제주도 여대생만 자기 지역 방언에 대하여 ‘듣기 싫다’(경상도 19%, 제주도 15%)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정민(1981, 571쪽)은 “경상도와 제주도 여성의 일부는 자신들의 지역 방언에 대해 ‘듣기 싫다’고까지 노골적인 반응을

제주도 대학생(남녀 각 20), 서울의 중학생(남녀 각 71), 서울의 대학생(남 67, 여 66), 서울의 대학원생(남 22, 여 13), 전남의 대학원생(남 2, 여 5), 서울의 직장인(남 64, 여 19)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숫자가 남녀별로는 남(409), 여 (375), 지역별로는 서울·경기(386), 강원도(52), 충청도(85), 전라도(95), 경상도 (119) 제주도(44), 이북(3)이 된다. 태도는 ‘듣기 좋다, 듣기 싫다, 믿음직스럽다, 썩썩하다, 상냥하다, 무뚝뚝하다, 간사스럽다, 점잖다, 배움직하다, 부럽다’ 등 11개 항목이다(이정민, 1981, 560쪽).

표시하고 있다. 제주도 말에 비오쿠다(비 오겠습니다), 뭐 먹쿠가?(뭐 먹겠습니다니까?), 가마쌌?(가라 말입니까?) 등의 유기음, 된소리 및 정지음 어미에서 오는 인상 탓도 있겠으나 이곳 여성들의 육지 진출 의욕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이정민, 1981, 571쪽)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다른 도에 비해 수는 적지만 서울에 올라와 대학에 다니는 제주도 출신의 학생들은 3명 중 2명이 ‘촌스럽다’<sup>7)</sup>, ‘무뚝뚝하다’의 양쪽에, 그리고 3명 중 1명이 ‘듣기 좋다’와 ‘믿음직스럽다’에 응답하고 있다.”(이정민, 1981, 571쪽)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필자는 2013년 이정민(1981)의 조사 내용과 같은 11개 항목의 태도에 대하여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남학생 22명,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를 1981년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방언에 대한 태도 비교(단위: %)

구 분	1981		2013	
	남	여	남	여
믿음직스럽다	25	20	32	45
듣기 좋다	55	20	64	70
씩씩하다	20	10	73	90
접잖다		10		
상냥하다			23	20
배움직하다	10		77	90
부럽다			23	35
촌스럽다	15		23	15
무뚝뚝하다	55	65	23	60
간사하다				10
듣기 싫다		15		

7) 현기영(1979/2003)의 『海龍 이야기』(124-125쪽)의 “그가 대학에 갓 입학해서 고향 선배들로부터 들은 충고 중에는 고향을 밝혀 이익될 게 없더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정부 고위관리 누구누구, 학계의 누구누구도 원래는 고향사람인데 본적까지 옮겨놓고 숨기고 있다 했다. 고향하느라고 대학을 6년 다니는 동안에 중호는 차츰차츰 사람이 서울식으로 닳고 닳아져갔다. 재학중에 군대 갔다 온 후로는 주로 입주(入住) 가정교사를 했는데 서울말씨를 배우는 데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었다.”는 구절에서 당시 서울 유학생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이 <표 2>의 비율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정민(1981)과 같이 10% 미만은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여학생의 ‘점잖다’와 ‘듣기 싫다’를 선택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1980년대와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높아진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조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강범모(2003, 697쪽)<sup>8)</sup>의 다른 지역 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믿음직스럽다’나 ‘듣기 좋다’의 경우 남학생은 25%에서 32%, 55%에서 64%로 오른 반면, 여학생은 각각 20%에서 45%로, 20%에서 70%로 크게 상승하였다. ‘씩씩하다’와 ‘배움직하다’는 항목에서 남학생이 20%에서 73% 또는 10%에서 77%로, 여학생이 10%에서 90% 또는 10% 미만에서 90%로 급상승하고 있다. ‘상냥하다’도 10% 미만에서 남학생 23%, 여학생 20%로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인 태도인 ‘촌스럽다’는 남학생이 15%에서 23%로, 여학생은 10% 미만에서 15%로 소폭 상승한 반면, ‘무뚝뚝하다’는 남학생이 55%에서 23%로, 여학생이 65%에서 60%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여학생들이 ‘간사하다’가 10%로 나타난 점이나, ‘듣기 싫다’가 15%에서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변화이다.

이와 같은 태도 변화는 유네스코가 2010년 제주어를 소멸위기의 언어로 지정한 결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제주어 보전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보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정민(1981)은 제주도의 경우 “스스로 어느 지역 방언을 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이정민, 1981, 581쪽).

8) 강범모의 조사 결과, “첫째, 자기 방언에 대한 긍정적 느낌은 과거와 현재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그 정도가 좀 더 커졌다.”, “둘째, 과거에 표준어 이외의 방언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 방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었다. 현재의 조사 결과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lt;표 3&gt; 제주도방언 사용 여부(1981년)(단위: 명)

구 분	남	여
제주도방언만 사용	2(10%)	1(5%)
제주도방언의 말씨에 단어만 표준말 사용	1(5%)	0
제주도방언의 말씨가 상당히 섞인 표준말 사용	5(25%)	1(5%)
제주도방언의 말씨가 약간 섞인 표준말 사용	2(10%)	4(20%)
제주도방언과 표준말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	11(55%)	16(80%)

그 결과 “‘제주도방언과 표준말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비율이 55%와 80%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의 언어 환경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방언은 타지역 방언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이므로 표준어 습득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 때문에 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은 타지역보다 월등히 나은 듯하다.”(이정민, 1981, 581 쪽)고 진단하였다. 곧 제주어는 너무 독특하여 다른 방언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어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표준어 교육을 강화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2013년 같은 내용으로 필자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남학생 22명,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lt;표 4&gt; 제주도방언 사용 여부(2013년)(단위: 명)

구 분	남	여
제주도방언만 사용	2(9%)	0
제주도방언의 말씨에 단어만 표준말 사용	2(9%)	2(10%)
제주도방언의 말씨가 상당히 섞인 표준말 사용	4(18%)	2(10%)
제주도방언의 말씨가 약간 섞인 표준말 사용	8(36%)	9(45%)
제주도방언과 표준말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	6(27%)	7(35%)

1980년대와 비교할 때 ‘제주도방언과 표준말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비율이 남녀 각각 27%, 35%로 낮아진 반면 ‘제주도방언의 말씨가 약간 섞이거나 상당히 섞인 표준말 사용한다.’는 비율은 남녀 각각 54%와 55%로 상당히 높아진 편이다. 설문 대상이 국어국문학과라는 특정 학과 학생이라는 점과 일부 어미나 어휘 사용을 ‘방언 말씨가 약간 섞인’ 또는 ‘방언 말씨가 상당히 섞인’ 것으로 판단, 선

택한 결과로 보인다.

## 2. 세대 간 차이

방언학에서 연령 차이에 따라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필자(2008)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조사한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생태 지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로, 제주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90개 어휘를 제주도민 240명(남녀별 120명씩이며, 세대별로 60대 이상·40대·20대 각각 40명씩이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지 항목은 ①‘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다.’ ②‘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③‘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 ④‘들어보기는 했으나 잘 알지 못한다.’ ⑤‘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등 5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생태 지수’란 어떤 어휘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고 있는가를 측정한 수치를 말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일상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의식주’, ‘민속’과 관련한 22개의 어휘를 대상으로 살핀다.

### 1) 옷

옷 문화에 관한 조사 어휘는 ‘뚜데기, 소계, 신착, ㄱ세, 바농’ 등 5개 항목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41.3%(바농)에서 20.4%(신착)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사용 빈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대에서 ‘뚜데기, 소계, 신착’ 등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전에만 남아 있는 어휘가 될 것이다.

<표 5> 옷 문화 어휘의 생태 지수(단위: %)

구 분	60대	40대	20대
뚜데기	35.0	26.3	6.3
소계	47.5	22.5	2.5
신착	40.0	20.0	1.3
ㄱ세	58.8	38.8	22.5
바농	58.8	45.0	20.5

‘뚜데기’는 ‘어린애를 업을 때 두르는, 끈이 달린 작은 포대기’를 말하는데, 표준어 ‘치네’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전체적으로 22.5%만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 35.0%, 40대 26.3%이며, 20대는 6.3%에 불과하다. 남성 15.0%, 여성 30.0%로 여성이 갑절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뚜데기’가 여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뚜데기’를 볼 수 없고, 간편한 유아 용품으로 대체되었다.

‘소계’는 표준어 ‘숨’에 해당하는 어휘로, 전체적으로 24.2%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에서는 47.5%, 40대 22.5%, 20대 2.5%로 세대 간에 2배, 10배 정도로 그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표준어 ‘숨’에 밀린 결과로 보인다. 남성 21.7%, 여성 26.6%로 여성이 그 사용 빈도가 높다.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어휘로 나타났다.

‘신착’은 표준어 ‘신짚’에 해당하는 어휘로,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 40.0%, 40대 20.0%, 20대 1.3%로, 세대 간에 2배 또는 20배의 차이가 난다. 남성 22.5%, 여성 18.3%로 남성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20대의 낮은 빈도는 ‘신’ 또는 ‘신착’ 대신에 ‘운동화’, ‘단화’, ‘구두’ 등으로 대체된 결과로 보인다.

‘ㄱ세’는 표준어 ‘가위’에 해당하는 어휘로, 전체적으로 40.0%를 사용하고 있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 58.8%, 40대 38.8%, 20대 22.5%로 나타나며, 남성(45.8)이 여성(34.2)보다 높게 나타나, 앞의 ‘뚜데기’처럼 여성과 관련이 깊은 어휘임에도 남녀 간 차이를 보여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바농’은 표준어 ‘바늘’에 해당하는 어휘로, 전체적으로 앞에서 본 ‘ㄱ세’와 비슷한 41.3%가 사용하고 있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 58.8%, 40대 45.0%, 20대 20.5%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남성(44.2)이 여성(38.8)보다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 음식

음식 문화에 대한 조사 어휘 항목은 ‘곤밥, 즈베기, 오매기떡, 상왜떡, 들레떡, 청, 장물’ 등 7개 어휘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39.2%(오매기떡)에서 10.8%(들레떡)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20대에서 ‘오매기떡’을 제외

하고 6개 어휘는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돌레떡’은 무속 음식이라는 점에서 60대 이상에서도 21.3%에 그치고 있다.

<표 6> 음식 문화 어휘의 생태 지수(단위: %)

구 분	60대	40대	20대
곤밥	43.8	37.5	8.8
즈베기	50.0	40.0	10.0
오매기떡	60.0	42.5	15.5
상왜떡	33.8	25.0	5.0
돌레떡	21.3	10.0	1.3
칭	40.0	30.0	2.5
장물	46.3	23.8	5.0

‘곤밥’은 ‘흰쌀로만 지은 밥’으로, 표준어 ‘흰밥’에 해당하며, 전체적 사용 빈도는 30.0%이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에서 43.8%, 40대 37.5%, 20대 8.8%로 그 빈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표준어 ‘쌀밥’으로 대체되는 경향으로 보인다. 남성이 33.3%로 여성 26.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즈베기’는 표준어 ‘수제비’에 해당하는 어휘로, 전체적으로 33.3%로 나타난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 50.0%, 40대 40.0%, 20대 10.0%로 나타나고 있다. 20대에 오면 급격하게 빈도수가 낮아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전체 평균치인 33.3%로 나타난다.

‘오매기떡’은 ‘차좁쌀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하여 고리 모양으로 둥그렇게 하고 가운데 큰 구멍을 내거나 눌러서 만든 떡’을 말한다. 60대 이상에서는 60.0%, 40대 42.5%이며, 20대 15.0%로, 다른 어휘에 비하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편에 속한다. 이런 결과는 요즘 시중 떡집에서 ‘오매기떡’을 판매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남성(34.2)보다는 여성(44.2)이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왜떡’은 ‘따뜻한 물에 기주를 조금 넣은 것으로 밀가루 따위를 되게 반죽하여 둥글거나 납작하게 만든 다음 따뜻한 방에 두어서 부풀린 다음에 찢 떡’을 말한다. 60대 이상에서는 33.8%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면 40대 25.9%, 20대에서는 5.0%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

다. 여성이 24.2%로 남성 18.3%보다 높게 나타난다.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를 쟁반같이 등글넓적하고 큼직하게 만든 떡으로, 표준어 ‘도래떡’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10.8%만 사용하고 있어 생태 지수가 낮은 편으로, 사전에만 남아 있는 어휘가 될 형편에 있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에서 21.3%, 40대 10.0%, 20대 1.3%로 나타난다. 남성 10.0%, 여성 11.7%에 불과하다. ‘돌레떡’은 무속 의례에서 사용되는 떡으로, 무속 의례가 점점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은 표준어 ‘꿀’에 해당한다. 60대 이상에서 40.0%, 40대 30.0%로 나타나나 20대에 오면 불과 2.5%로 낮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24.2%에 불과하다. 남성이 26.7%로 여성 21.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물’은 표준어 ‘간장’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25.0%이며,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에서 40.0%, 40대 23.8%로 나타나며, 20대에 오면 5.0%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남성이 31.7%로, 여성 18.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준어 ‘간장’으로 대체되고 있다.

### 3) 집

집 문화에 대한 조사 어휘 항목은 ‘안거리, 밧거리, 쉼막, 통시, 상방, 정지, 굴목’ 등 7개 어휘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안거리’와 ‘밧거리’가 각각 38.8%, 3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쉼막, 정지, 통시, 굴목, 상방’은 10%에 머물고 있다. 20대에서는 ‘쉼막, 통시, 상방, 정지, 굴목’은 아주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표준어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거리’는 ‘한 집에 안팎 두 채 이상의 집이 있을 때, 안에 있는 집채’를 말하는데, 표준어 ‘안채’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33.8%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과 40대에서는 비교적 높은 45.0%, 48.8%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거의 비슷한 39.2%, 38.3%로 나타나고 있다.

‘밧거리’는 표준어 ‘바깥채’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안거리’와 비슷한 37.9%로 나타난다. 세대에 따라 60대 42.5%, 40대 46.3%, 20대 25.0%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39.2%, 여성 36.7%로 비슷한 편이다.

&lt;표 7&gt; 집 문화 어휘의 생태 지수(단위: %)

구 분	60대	40대	20대
안거리	45.0	48.8	22.5
뱃거리	42.5	46.3	25.0
쉐막	27.5	23.8	2.5
통시	22.5	18.8	2.5
상방	13.8	15.0	0
정지	25.0	20.0	2.5
굴묵	17.5	15.0	1.3

‘쉐막’은 ‘소를 가두어 기르는 집’을 말하는데, 표준어 ‘외양간’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17.9%에 불과, 생태 지수가 낮은 편이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에서 27.5%, 40대 23.8%, 20대에서는 2.5%로 아주 낮은 편이다. 남성 18.3%, 여성 17.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학생은 2.1%에 불과하다.

‘통시’는 표준어 ‘변소’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14.6%에 불과하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에서도 22.5%, 40대 18.8%, 20대 2.5%로 아주 낮은 편이다. 남성 18.3%, 여성 10.8%이다. 학생은 2.1%로 나타난다. 표준어 ‘변소’ 또는 ‘화장실’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상방’은 몸체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를 뜻하는데, 표준어 ‘대청’ 또는 ‘마루’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9.6%만 사용하고 있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에서도 13.8%, 40대 15.0%이며, 20대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어휘로, 표준어 ‘마루’ 또는 ‘거실’이라는 어휘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이 12.5%로 여성 6.7%보다는 배나 높게 나타나지만 생태 지수는 아주 낮은 편이다. 학생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정지’는 표준어 ‘부엌’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15.8%에 불과해 생태 지수가 낮은 편이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에서 25.0%, 40대 20.0%이며 20대에서는 2.5%에 불과하다. 남성이 20.0%로 여성 11.7%보다 높게 나타나며,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표준어 ‘부엌’ 또는 ‘주방’에 밀린 결과로 보인다.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뿜 수 있도록 만든 아궁이. 또는 그 아궁이 바깥 공간’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11.3%에 불과하며 60대 이상에서 17.5%,

40대 15.0%, 20대에서는 1.3%에 불과하다. 남성 17.5%, 여성 5.0%에 그치고 있다. 학생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멸의 길로 들어선 어휘가 되었다.

#### 4) 민속

민속 문화에 대한 조사 어휘 항목은 ‘결궁, 가문잔치, 고적’ 등 세 어휘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궁’ 20.3%, ‘가문잔치’ 45.4%, ‘고적’ 10.8%로 나타나, ‘가문잔치’를 제외하고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문잔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주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표 8> 민속 문화 어휘의 생태 지수(단위: %)

구 분	60대	40대	20대
결궁	38.8	22.5	1.3
가문잔치	63.7	62.5	10.0
고적	21.3	11.3	0.0

‘결궁’은 ‘동네에 경비 쓸 일이나 경축할 일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풍장과 복색을 갖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풍악과 연예를 베풀어 돈이나 곡식을 얻는 일’을 말하는데, 표준어 ‘걸림’에 해당한다. 이제는 잊혀져 기억 속에 남아 있거나 책에서만 확인되는 어휘이다.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에서 38.8%, 40대 22.5%로 나타나며 20대에서는 1.3%에 불과하다. 남성이 22.5%, 여성이 19.2%이며, 학생들은 전혀 쓰지 않고 있다.

‘가문잔치’는 ‘잔치 전날 저녁에 가까운 친척만 모여 치르는 잔치’를 말한다. 60대 이상에서는 63.7%, 40대 62.5% 사용하며, 20대에서는 10.0%에 불과하다. 남성 44.2%, 여성 46.7%로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가문잔치’가 20대를 제외하고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잔치 풍속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잔치 전날 가까운 가문이 모여 잔치를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전 풍속을 조금 변형하여서라도 이어진다면 이에 따라 어휘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고적’은 ‘집안에 장사가 났을 때 친척들이 만들어 가는 부조 떡이나 돈’을 말한다. 예전에는 메밀가루로 ‘돌레떡’을 쌀 한 말어치를 만들어

갔으나 현재는 돈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 ‘고적’은 어른이 되어야만 해당되는 민속으로, 그 기준은 결혼 여부에 있다. 곧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직 어른이 아니니 고적을 해야 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적으로 사용 빈도는 10.8%에 불과하며, 60대 이상에서 21.3%, 40대 11.3%이다. 20대와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대와 학생은 고적의 대상이 아니라 ‘고적’이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제까지 살핀 22개의 어휘의 생태 지수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9> 세대별 생태 지수단위: 개)

지 수	전체	60대	40대	20대
60-69		2	1	
50-59		3		
40-49	3	7	5	
30-39	5	3	3	
20-29	7	5	8	4
10-19	6	2	5	3
0-9	1			15

전체적으로 22개 모든 어휘가 50% 미만이며, 세대에 따라 60대 이상에서 50% 이상이 5개 어휘(7세, 바농, 즈베기, 오매기떡, 가문잔치)에 불과하며, 40대에서는 ‘가문잔치’에 불과하다. 20대에서는 22개 어휘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음식 문화, 가옥 구조, 풍속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20대와 차이는 심한 편이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들 어휘가 사전에만 남아 있는 어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3. 지역적 차이

여기서 ‘지역적 차이’란 변이형이 지역이 다름으로써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제주어를 놓고 볼 때, 산남·산북 지역의 방언형이 다르고, 산남 지역에서도 동서로 나뉘어 동쪽의 정의 방언형이 서쪽의 대정 지역과 다르니 이들이 지역적 차이이다.

김순자(2010, 133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하위 방언권을 넷

으로 나누고 있다.

제주도 동북방언: 조천·구좌·우도

제주도 서북방언: 제주시·애월·한림(비양도)·한경

제주도 동남방언: 서귀포·남원·표선·성산

제주도 서남방언: 중문·안덕·대정·가파도(마라도)

이와 같은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뉘는 것은 행정 구역의 변천과  
 쉼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원진의 『탐라지』 ‘건치 연혁’에 따르  
 면 제주도에 ‘동도현’과 ‘서도현’이 설치된 것은 1300년(고려 충렬왕  
 26)이며, 이 ‘동·서도현’은 1416년(조선 태종 16)까지 약 110여 년 이어  
 졌다. ‘동도현’은 지금의 ‘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서귀’ 지역이  
 며, ‘서도현’은 ‘제주시·애월·한림·한경·대정·중문’ 지역에 해당한다. 제  
 주시 지역에서는 제주시와 조천이 경계가 되며,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중  
 문과 서귀포가 그 경계가 되어 이 두 경계선을 이어 그 동쪽은 ‘동도현’  
 이 되고, 서쪽은 ‘서도현’이 되는 것이다. 1416년부터는 제주도를 삼현  
 체제, 곧 제주목·대정현·정의현 체제는 1914년 행정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려 500여 년 지속되었다. 고려 시대의 행정 체제와 조선 시대  
 의 행정 체제를 겹쳐 보면 서귀포시 지역에서 중문과 서귀포를 가르는  
 경계선과 제주시 지역의 제주시와 조천을 가르는 경계선이 제주도 동서  
 를 가르는 구획선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삼현 분립 때 제주  
 목과 대정·정의현을 가르는 행정 구획선이 작용한 결과 앞에서 본 4개  
 의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적 분화를 보  
 기로 하자.

### 1) 동서 분화형

동서 분화형은 대체적으로 제주도를 동서로 가르는 분포를 보이는 방  
 언형을 말한다. ‘툷, 냉이, 망사리’ 등이 이에 속한다.

#### ① 툷

‘툷’은 갈색 바다풀로, 봄에 부드러운 잎을 따서 삶아 먹기고 하고,  
 말리었다 무치어 먹거나 물을 부어 냉국을 만들어 먹기로 한다. 지역에

따라 표준어와 같은 ‘툇’을 쓰기도 하고, 방언형인 ‘툄’로 나타나기도 한다. ‘툄’이 나타나는 지역은 ‘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서귀포’이며, ‘툇’은 ‘제주시·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중문’에 분포한다. 제주시와 조천 사이, 중문과 서귀포 사이가 그 분계선으로 하여 동서로 나뉜다.

### ② 냉이

‘냉이’는 겨갯과의 두해살이풀로, 이른 봄 뿌리째 캐어 국을 끓여 먹거나 나물로 무치어 먹기도 하는 풀이다. 지역에 따라 ‘난시(난쟁이), 난지(난쟁이)’ 등으로 나타나는데, ‘난시’가 나타나는 지역은 ‘제주시·조천·구좌·성산·표선’이며, ‘난지’가 나타나는 지역은 ‘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중문·서귀·남원’이다. 제주시와 애월 사이, 표선과 남원 사이를 분계선으로 동서로 나뉜다.

### ③ 망사리

‘망사리’는 잠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넣어두는, 그물로 된 그릇을 말하는데, 지역에 따라 ‘망사리’ 또는 ‘망시리’로 나타난다. ‘망사리’가 나타나는 지역은 ‘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이며, ‘망시리’는 ‘제주시·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중문·서귀포’ 지역에 나타난다. 제주시와 조천 사이, 서귀포와 남원 사이가 분계선이 되어 동서를 가르고 있다.

## 2) 남북 분화형

남북 분화형은 대체적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는 곧,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가르는 분포를 보이는 방언형을 말한다. ‘화승·마간이·즈베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 ① 화승

‘화승’은 새품을 바처럼 만들어 날 칩 줄기로 감아 만들어 불씨를 보관하는 물건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화심’(훼심), ‘화승’(화승), ‘불찍’, ‘미심’ 등으로 나타난다. ‘화심’은 한라산 북쪽 지역에 나타나며, ‘화승’은 한라산 남쪽 지역에 나타난다. ‘불찍’은 ‘한림’ 지역에, ‘미심’은 ‘애월’ 지역에 나타난다.

② 마간이

‘마간이’는 장마가 끝난 다음에 짓는 조 농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마간이’ 또는 ‘마견이’로 나타는데, ‘마간이’는 한라산 북쪽 지역에, ‘마견이’는 한라산 남쪽 지역에 나타난다.

③ 즈베기

‘즈베기’는 표준어 ‘수제비’의 방언형으로, 지역에 따라 ‘즈베기’, ‘저베기’로 나타난다. ‘저베기’는 ‘서귀·남원·표선’에 나타나며, ‘즈베기’는 ‘서귀·남원·표선’을 제외한 지역에 분포한다.

이들 지역적 차이는 앞에서 살핀 세대 간 차이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세대 간에는 쓰고 있느냐, 쓰지 않느냐 하는 차이로, 곧 방언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이다. 60대 이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반하여, 20대에서는 방언형이 아예 없으니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 사이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극과 극의 상황이니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는 아주 다른 방언형이 아니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

### Ⅲ. 제주어를 통한 제주 사회 통합

앞에서 방언에 대한 태도, 세대 간의 차이, 공간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해보았다. 자기 방언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여성인 경우 자기 방언에 대한 부정적 경향이 많이 약화되는 추이를 확인하였다. 세대 간이는 20대에 더욱 두드러진 편이며, 공간적 차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님도 확인하였다. 제주어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약화시키는 방안, 세대 간의 차이는 줄여 결속력을 다지는 길이 곧 언어를 통한 사회 통합 방안이 될 것이다.

그 첫째는 방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이고, 방언은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다. 표준어도 달리 보면 ‘경기도방언’ 또는 ‘중부방언’에 속한다. 표준어가 인위적인 언어, 엄격성의 언어라고 한다면 방언은 살아 있는 언어, 친근성이 있는 언어다. 방언이 결코 교양이 없고, 덜 세련되고 그래서 쓰지 말아야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형성하는 한 하위 언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더욱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여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는 언어상대성가설에 견주어 본다면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언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둘째는 제주어에 대한 학교 교육의 강화이다.

언어의 완성은 13살 전후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제주어 완성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교과과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작하는 『제주어교육자료』를 교재로 활용하는 것, 하교할 때 경로당의 어르신들과 대화하다 집에 가는 것도 제주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 방법일 될 것이다.

셋째는 표준어, 제주어를 말하는 이중언어 생활이다.

이중언어 생활이란 ‘한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와 같은 두 개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표준어와 방언, 자기 방언과 다른 방언 사용 또한 이중언어 생활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언어 생활이란 표준어와 방언 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적인 생활에서는 표준어를,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는 제주어를 쓰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용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공적인 생활에서는 한국어인 표준어를 써야 하지만,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는 제주어를 쓰는 이중언어 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제주어는 제주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자리잡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가 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는 프랑스어를,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는 브레타뉴어를 사용하는 브레타뉴 지방의 언어 정책이 그 본이 될 것이다.

넷째는 제주어를 살아 있는 언어가 되게 해야 한다.

살아 있는 언어란 정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 언어를 뜻하며,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내는 행위도 포함한다. 언어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고, 나아가 언어 공동체의 견고성을 확보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된다. 제주어를 살아 있는 언어로 만든다

면 제주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제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제주어로 말하고, 제주어로 글을 쓰고, 제주어로 생각하고, 제주어로 꿈도 꾸게 하려면 제주어를 자주 즐겨 쓰는 방법밖에는 없다. 즐겨 쓰다 보면 결국 제주어는 어느새 살아 있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제주어 축제를 개최하는 일이다.

이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의 ‘제주어 주간’<sup>9)</sup>을 활용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들려주는 제주 옛 이야기를 듣게 하고, 젊은 이들은 그네들의 생각과 주장을 제주어로 말하고 하고,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여 제주어를 실컷 이야기할<sup>10)</sup>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 제주어를 관광 상품화하는 일이다.

제주어 이름의 상품 개발은 물론 제주어 간판<sup>11)</sup>, 제주어 자료집 등을

- 9)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6조는 다음과 같다. ①제주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탐라문화제 개최 기간 즉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매년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주어 주간 기념 행사 2. 제주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행사 등 3. 그밖에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행사 ③도지사는 제주어 주간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제주어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0) 현기영(1979·2003)의 「海龍 이야기」(113-114쪽) “그러나 동창들은 생각처럼 눈을 뚫그랗게 뜨고 선망의 눈초리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입에 바늘썩지를 물고 재벌회사의 횡포가 어떻고, 회장님의 존함을 마치 제집 똥개 부르듯 함부로 불러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신세인 주제에, 괜히 왔다 싶었다. 게다가 동창 여남은 명이 좁은 골방에 틀어박혀 곤죽이 되도록 소주를 퍼마시고 서로 뒤엎혀 제주도 사투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 꼴이라니. 원, 평소에 제주 사투리를 맘대로 못 써서 울화가 땀혔다. 저렇게 악을 바라바라 쓰게. 이런 반발감을 느끼면서도, 한편 야릇하게도 그 분방한 분위기에 은근히 마음이 쏠리는 중호였다. 참 희한한 녀석들이다. 저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다니. 오죽 서울말이 답답하면 저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사투리로 푸닥거리를 할까? 녀석들이 부럽다.”는 상황을 연상해 보면 좋을 것이다.
- 11) 업소 55소를 대상으로 ‘제주어 간판 호감도 조사’에서 “제주어 간판이 지역 문화와 관광 육성에 도움 된다는 결과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강영봉 등, 2009, 63쪽).

발간, 관광 상품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고급 관광객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주어 보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갓 우스개와 같은 저급의 제주어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일곱째는 제주어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하는 지름길로, 70대 이상의 좋은 제보자가 건재할 때 제주어 자료를 수집해 놓지 않으면 자료 수집은 불가능하다. 자료는 음성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를 포함한다면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수집된 제주어 자료를 비롯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곳에 집적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

#### IV. 결론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하며, 시급하게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제시했다. 즉 제주어 보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 외국의 보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수집할 것, 제주어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게 할 것 등이 그것이다. 정책 수립은 2007년 제정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로 충분하며, 문제는 그 실천에 있다. 외국의 보전 사례 수집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전문가들 나름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네 가지 가운데 역점 두어야 할 것은 ‘제주어 교육 강화’와 ‘실생활에서 쓰이는 언어가 되게 노력하는 일’이다. ‘제주어 교육 강화’는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교과과정화하는 작업이 절대 필요하다. 꼭 짜여진 틀 속에서 제주어가 비집고 들어간 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력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제주어를 실생활에서 쓰이는 언어가 되게 노력하는 일’은 자주,

구 분	매우 도움	다소 도움	그저 그렇다	다소 지장	매우 지장
남	5	13	6	0	1
녀	7	10	7	0	0

즐거 쓰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다. 제주어가 어른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기 주장을 제주어로 말하게 함으로써,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일상으로 쓰는 언어로 자리바꿈할 때 제주 사회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나아가 제주 문화 창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인은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프랑스인 스스로의 자부심에 빗대어 “제주 사람을 제주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세상을 꿈꾼다.

## 참고문헌

- 강범모(2005), 『한국인의 방언에 대한 태도의 추이: 1980년대와 2000년대』,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너머』, 한국문화사.
- 강영봉 등(2008), 『제주 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_\_\_\_\_ (2009), 『제주지역 간판 문화의 특성화를 위한 제주어 활용 방안 컨설팅』, 문화체육관광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김석익(1918), 『탐라기년』, 제주서관.
- 김순자(2010),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우(1996), 『언어와 문화』, 중앙대학교 출판부.
- 이규호(1971), 『말의 힘』, 제일출판사.
- 이성준(1999), 『홉볼트의 언어철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정민 등(1987), 『언어학사전』(개정증보판), 박영사.
- 이정민(1981),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173·174, 한글학회.
- 조준학 외 3인(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언어 접촉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학연구』 제17권 제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피히테/황문수 역(1989), 『독일 국민에게 고함』, 범우사.
- 현기영(1979·2003), 『순이 삼촌』, 창비.
- Humboldt/신의성(1985), 『홉볼트: 카비말연구 서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8), 『홉볼트: 언어와 인간』·하, 서울대학교 출판부.
- Sapir/김중훈 역(1963), 『언어학개론』, 일우사.

Abstract

## The Unity of Jeju's Society and the Jeju Dialect

Kang, Young-Bong\*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functions of the Jeju dialect to unify Jeju's society. The argument starts from the premises that "language is a social contract," "language is *energeia*", and the linguistic relativity hypothesis that "differences in language lead to differences in experience and thought."

Attitudes towards the dialect, generation differences, and regional differences are taken as linguistic variables regarding the social unity, and the phenomena with respect to the variables are examined. Negative attitudes towards the dialect tend to alleviate, and males are more favorable to the dialect than females. Compared to this, generation differences show serious aspects. The result from exploring 22 words regarding Jeju's culture found that overall ecological index of all 22 words was below 50 percent. There were big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vocabulary use among generations, which has to be overcome in the future. Regional differences were also found, but they were less serious than generation differences.

In order to integrate Jeju's society, paradigm shifts in the perception of the dialect are needed. The Jeju dialect can be a living language when the Jeju dialect education is strengthened and bilingualism (the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dialect and standard language) is accepted in the social contexts.

Key Words : social unity, Jeju dialect, Jeju's culture, language attitudes, ecological index, bilingualism, Jeju's people

교신 : 강영봉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일동 1,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 bong271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 5. 20.

심사완료일 2013. 6. 22.

게재확정일 2013. 6. 25.